

한마음한몸

30th Anniversary
3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988-2018

2018 여름호 | vol. 38

One-Body One-Spirit Magazine Summer
www.obos.or.kr

SPECIAL

자살 불편한가요? 함께 길을 찾아볼까요?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마음한몸입니다



COVER STORY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6월 3일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의 주례로 본부 설립 30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성당 들머리와
앞마당 일대에서 감사 축제를 펼쳤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기획특집

- 3 자살 불편한가요? 함께 길을 찾아볼까요?

함께하는 기도

- 11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12 기부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30주년

- 13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마음한몸입니다

현장 속으로

- 16 유기농업은 _____을 바꿉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 18 나눔의 꽃이 피었습니다

- 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 22 한마음한몸 새 소식

통권 38호 | 2018년 여름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8년 여름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 www.obos.or.kr

fb facebook.com/oboscorea

📷 onebody_onespirit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기획특집

자살 불편한가요? 함께 길을 찾아볼까요?

누군가가 자살을 생각한다는 말,
누군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당사자나 그 주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고, 불편하고, 잘 모르고,
어쩌면 이것이 자살에 대한 우리 인식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자살은 드러낼수록 예방할 수 있다는 걸요.
삶과 죽음에 관해서도, 내 감정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또 다른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마음한몸에서는 자살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13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2.5배 더 많습니다. 자살은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원인 중 1위입니다. 자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고 아픔입니다.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살에 관한 몇 가지 사실

(2016년 기준)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

36명



연간 자살 사망자 수

13,092명



10만 명당 자살률

25.6명

OECD 2.4배 (평균 12.1명)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6.5조 원



자살유가족 발생

매년
7만여 명



자살유가족의 자살 위험

일반인 대비
8.3배

자살에 대한 국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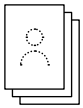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또 이러한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최초의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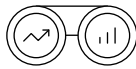
2018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 OECD 자살률 1위 탈피
- 25.6명 → 17.0명
- 5년간 1만5천 명의 자살예방
- 행정부, 전 사회적 추진 체계
- 복지·고용·교육·문화 등 관계부처 합동
- 종교계·언론계·재계 등 소통 협의

1. 자살예방 정책 근거 마련



5년간(2012~2016) 자살
사망자 7만여 명 전수조사



국가 자살통합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단위: 세)

6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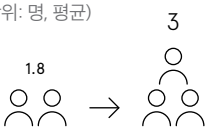


70
60
50
40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검진 연령 확대

3.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단위: 명,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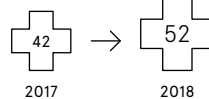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인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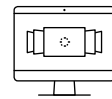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마음건강주치의' 확대 추진

(단위: 개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MHS) 구축

2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출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국내 최초로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민관 공동위원장을 두며, 민간 부문 대표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정부 부문 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협의회에는 종교, 노동계, 기업, 언론, 사회단체 등 34곳의 민간 부문 기관들과 6곳의 정부 부처(청)가 참여합니다. 자살문제의 해결에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한 협의회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자살에 관한 개념이 불편하고 어렵기만 한 당신에게

자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둘 중 어떤 질문이 위기에 처한 상대방을 돕는 길일까요?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 더 낫다고
생각되지만, 상대방은 ‘자살=나쁜 생각’이라는 마음에 더
마음을 나누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자살예방은 특정 전문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래 질문과 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살을 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징후가
있나요?

누구든지 인생의 어떤 시기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실제
자살 사망자의 70~80%는 죽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에 죽음을 암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도움의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유형별 특징적 자살신호

① 언어적 신호

- 죽고 싶다는 직접적인 표현
-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
- 절망감과 죄책감의 표현
- 집중력과 일상생활 기능 저하
- 감정의 변화

② 행동적 신호

-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 자해흔적, 전에 없던 행동들
- 외모의 변화
-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③ 상황적 신호

- 극심한 스트레스
- 만성 질환, 신체적 장애,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
-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설마 자살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살 위기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살의 신호를 알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자살을 암시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렸던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들을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면 좀 더 부드럽게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얼굴도 많이 안 좋고, 말도 없어지고, 평소에 안하던 지각도 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당신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살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표현도 가능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나만 없어지면 모두 편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편하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이 오히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자극하거나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살위기 상담의 경우 이 질문은 위기자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자살사고를 환기해 줌으로써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자살에 대해 물어 본다면 자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응, 나 죽고 싶어” “은통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라고 대답한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왜 죽으려고 하는지를 잘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강요하거나 조급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죽고 싶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누구에게나 그렇게 힘든 일들은 있어.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식의 말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이유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 적극적인 경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 태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내가 이해한 바를 풀어서 다시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는 경청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 따뜻한 관심과 사랑 표현하기
- 가족/친구가 자살생각을 표현할 때 그 위험성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상담/치료 거부하면 권유하는 사람이 직접 상담 받아 보기

“정말 힘들었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힘들셨군요”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으로는 시선이나 자세를 상대방 쪽으로 향하며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신중하게 침묵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동시에 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이유를 충분히 경청하면서도 삶을 지속할 이유를 함께 찾아보며, 살고 싶은 이유를 더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에서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계속 찾아가도록 지원해주면 됩니다.

3. 본당에서 자살자를 위한 장례미사를 드릴 수 있나요?

가톨릭교회 생명윤리 교과서라고 불리는 회칙 「생명의 복음」이 반포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5년 이 회칙을 통해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재천명했습니다. 회칙에는 ‘자살’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돼 있습니다. 66항은 “자살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반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자살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줄 것도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3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개정된 새 교회법(1983)에서는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의 장례식을 금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자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예를 갖추 장례를 치러주며 자살자들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살에 대해 터부시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평생을 편하게 말 못하고 살아가는 유가족의 고립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헤아려 주고 위로하자는 것입니다.

자살 유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배려와 위로만이 사람들의 아픔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4. 자살 위기자를 도울 수 있는 게이트키퍼 교육은 누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의 2015년 심리부검 결과에 의하면, 자살 사망자의 93.4%가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족의 81%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살 위기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9일부터 전 국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인 '보고듣고 말하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교육장은 중앙자살

예방센터에 개설되어 있으며, 누구나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도 매년 상·하반기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정기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당 신자나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등 단체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내 주변에 자살유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아픔보다도 아픈 일입니다. 특히 스스로 삶을 포기한 이의 남은 가족이 살아가는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을 것입니다. 원망, 분노, 죄의식, 그리움 등 정리되지 않는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줄 여유도 없고, 곱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무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선불리 위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자살유가족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위로를 표현하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자 유가족에게 '빨리 슬픔에서 빠져나와 회복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유가족은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기운을 내야 한다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되, 스스로 회복을 위한 시작을 가지기 전까지 관심과 기다림으로 함께 머물러 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위기상담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

전화상담
1599-3079
(월~금, 10시~17시)

면접상담
02)318-3079
(월~금, 10시~16시)

대상 우울하고 슬픈 기분, 부정적인 생각,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즐거움 감퇴, 체중의 갑작스런 증가나 감소, 불면증 혹은 수면과다, 무기력감, 죄책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심리적 증상으로 힘들신 분

상담비 무료/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 1회, 50분)

자살생각과 관련해 '즉시 위기상담'이 필요하시면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운영)를 이용해주시고, 면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센터(02)318-3079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은 주변을 돌아보세요 말을 걸어주세요

2003년 〈The New Yorker〉의 금문교 투신자살 관련 기사에서
정신과 의사 제롬 모토(Dr. Jerome Motto)는
자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자살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부검시관과 함께 그 사람의 아파트에 갔어요.
그는 30대 독신이었고, 아파트는 변변한 가구도 없이 행하기만 했어요.
옷장 위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리까지 걸어간다. 도중에 누군가가 내게 미소를 지어준다면,
나는 투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자살의 주요동기는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혼자서 극복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자살은 결국 우리 모두의 자발적 관심과 돌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희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자살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연민 안에서 위로받고
생명을 선택할 힘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사 66,13)”

자살자 한 명당 그의 가족과 지인 등 평균 7명이 죄책감, 절망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자살자가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살의 심각성은 자살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자살자와 그 유가족, 자살 위기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는 무엇인지, 자살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생각하며 자살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살한 이들과 유가족, 자살 위기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부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져

조호연베르나르도 군



※ 본 콘텐츠는 가톨릭 비타콘 2018년 4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10년째 기부를 이어온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2008년 첫돌을 기념한 ‘생애첫기부’를 시작으로 매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조호연 베르나르도(서울대교구 중앙동성당)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번에 걸쳐 나눔을 실천한 호연이는 첫돌 때부터 매해 생일이 되는 8월이면 가족과 명동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찾아 기부증서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생일파티 대신 하는 호연이네 가족행사입니다.

초등학생 기부천사, 호연이를 만나 기부에 관해 물었습니다. 호연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제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에요. 다 엄마 아빠 돈이었는데요.”

말하고는 어색한지 환하게 웃는 모습은 역시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꾸밈없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밝히는 순수함. 이 순수함을 배우라고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되라 하셨나봅니다.

첫돌 전달식에서 물병을 잡고 아기 의자에 앉아 있던 호연이는 어느새 시키지 않아도 남을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해있었습니다. 1학년 때 학교 앞뜰장터에서 자신의 물품을 판 금액 1만 원을 선뜻 기부함에 넣기도 했습니다. 누가 권유하거나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잘했지?”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묻자 호연이는 무언가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쓰지 않는 장난감을 박스에 담아 성당에 기부했어요.”

2년 전만 해도 남에게 장난감을 준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왜 내 추억이 담긴 장난감을 엄마 마음대로 넣느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스스로 장난감을 골라 다 채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박스에 장난감을 담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다고 호연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기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힐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한 호연이. 가난한 나라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아 앞으로도 내가 많이 도와줄테니 잘 지내! 그리고 아프지 말고 잘 살아줘!” ☺

‘생애첫기부’는 2008년 한 부모가 아이 돌잔치에서 선물 받은 돌 반지를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시작되었다. 첫해에 14가족이 참여했고, 매해 참여자가 늘어 2018년 현재 총 3,651가족이 동참했다. ‘생애첫기부’는 100일·돌잔치 비용을 아껴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와 지구촌 빈곤국가 아이들과 함께하자는 기부 캠페인이다. 생애첫기부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생일마다 기부하는 가족이 늘면서 2011년도에 기념일기부가 생겼고, 2018년 현재 생애주기별 기부(생애첫기부, 기념일기부)에 총 5,833가족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여럿이지만 한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큰 나무처럼

많은 것을 나누었다는 것을 오늘 행사를 통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염수경 추기경님, 본부 설립 30주년 감사 미사 중



축제 현장 중앙의 커다란 풍선에 30주년을 맞은 본부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1989년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한국 천주교회가 성체성사의 신비를 일상의 삶으로 살도록 하고자 시작한 한마음한몸운동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본부는 성체 성혈 대축일인 지난 6월 3일, 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의 주례로 본부 설립 30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성당 들머리와 앞마당 일대에서 감사 축제를 펼쳤습니다.

감사미사를 집전해주신 염 추기경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과 손, 발과 눈이 되어 한마음한몸운동을 드러내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셨습니다.

미사 중 30주년 주제 성구인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마음한몸입니다'(1코린 10,17)와 본부의 지난 30년 간의 활동 기록을 액자로 만들어 봉헌하고, 그동안 한마음한몸운동 활동에 다양하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해드렸습니다.

성당 들머리와 앞마당 일대에는 본부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독립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족화해위원회, 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성가정임양원과 연대의 축제를 여는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꾸며졌습니다. 이밖에 포토존, 버스킹 공연 등의 즐길 거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성전 앞 계단의 화단 공간에서는 한마음한몸운동 30년의 역사 사진 전시를 선보여 미사를 봉헌하고 나오는 신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 설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한마음한몸 축제와 감사 미사는 기쁨과 나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또한,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을 나누는 나눔 한마당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 한마음한몸운동에 대한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간 본부의 활동을 지지해주신 많은 신자분들께도 감사 인사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부는 앞으로도 예수님의 눈과 손발이 되어 세상 안에서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며,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열심히 펼쳐나가겠습니다.



- ① 한마음한몸운동본부 30년간의 활동기록을 액자에 담아 미사 중에 봉헌하였습니다.
- ② 한마음한몸축제 현장을 찾은 젊은 커플이 성체마크가 그려진 기념부채를 들고 환하게 웃어보입니다.
- ③ 한 청년이 한마음한몸축제 '운동' 존에서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 팔빙수용 얼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 ④ 지구시민 서포터즈 청년들이 '한마음' 존에서의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마치고 모여 기념촬영을 합니다.
- ⑤ 서현진 가브리엘라 홍보대사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활동 부스를 찾아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농민의 삶을 지역사회를 국민의 건강을

바꿉니다

“애쓰는 농부가 소출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2티모 2,6)

사업명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유기농업 활성화

지역 필리핀 벵게트 지역

기간 2018년 1월~2020년 12월

후원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필리핀의 벵게트 주는 주요 채소
생산지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하
본부)는 필리핀 바기오 교구와 함께 2016
년부터 이 지역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지속가능한 농업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농민들은
유통업자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대다수가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의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여 농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토양마저 황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부는 생산자인 농민의 생계와 건강한
먹거리를 바라는 소비자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필리핀
바기오 교구에서 설립한 Our Farmers'
Haven(이하 OFH),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우리농)와
업무 협약을 맺어 농민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재정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¹

본부와 우리농, OFH 3개 단체는
우선 지난 2018년 1월과 5월의
공동모니터링을 통해, 농민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유기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OFH는 가톨릭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역의 유기농업 단체²들과
협력하여, 유기농업을 홍보하고 연대하는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로
400명이 넘는 농민들에게 유기농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① 지난 5월 25일에 개최된 OFH 정기총회

② 까방안 지역 농민 교육

하지만 교육을 이수한 농민들이 전통 방식의 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유기농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설 투자, 유통과정 개선과 판매처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부와 우리농, OFH는 농민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시장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판로 확보의 과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약 80여 명의 농부들이 실제로 유기농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 생산하는 농작물과 생산량은 다르지만 점차 참여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개인 또는 공동체 단위로 유기농 인증을 신청한 상태³입니다.

유기농업을 시작한 농민들이 기후나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닐하우스는 현재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7개소씩 21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2018년 상반기 2개소 설치, 하반기 5개소 예정). 또한, OFH에 가입한 농민들의 판매수익 중 일정 금액으로 시설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판로 확보의 차원에서 바기오 지역에 로컬 직매장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시장인 마닐라에는 마닐라 카리타스의 매장과 Healthy Option이라는 기업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동안 마닐라에 OFH 직매장 7곳이 개소될 예정입니다.

본부, 우리농, OFH 3개 단체는 유기농업을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땅을 살리는 농업,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다른 농민 조직들과 연대하여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기농업과 관련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본부, 우리농, OFH는 유기농업을 통해 농민은 땅을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합당한 대가를 얻고, 소비자들은 안정된 시장 가격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펼쳐가겠습니다.

- ③ Benin 시범농장
- ④ SPITAN 시범농장
- ⑤ 로컬 매장 전경
- ⑥ 수확한 채소를 판매하는 로컬 매장 내부

¹ 이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ur Farmers' Haven,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² La Top(La Trinidad Farmers' Group), TOFPA(Tublay Farmers' group), BARP, SIHM

³ 최근 시범농장 7개소와 26가구, 44개의 품종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며, 6월 13~14일에 OCCP의 현장 실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나눔의 꽃이 피었습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270호점

와일드어바웃

대표 진명아 엠마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49길 21

1층(서초동)

문의 02)522-5377



가장 최근에 맡아본 꽃향기는 무엇인가요? 그 향은 상큼했나요, 달달했나요? 거리에서 만난 꽃인가요, 누가 선물한 꽃이었나요? 아마 바로 뚜렷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순수하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건, 우리 삶의 터전이 그만큼 각박하다는 증거인지 모릅니다. 여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의 순간을 전하고 싶은 나눔가게가 있습니다. 꽃향기처럼 은은하고 꾸준한 나눔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나눔가게는 서초3동 성당 앞에서 가득한 꽃향기처럼 풍성한 나눔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와일드어바웃 플라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과 운영하시는 가게를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명아 엠마입니다. 현재 사당동 성당에 다니고 있고요. 가게를 운영하느라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어서 본당 활동은 새벽미사 반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예를 전공하고 다른 일들을 하다가 지금 이곳에 플라워샵을 열고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종종 플라워 레슨도 진행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이 간단히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계기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알게 되었나요?

성당 주보를 통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하 본부)를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본부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눔가게로 등록도 하시고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보에 있던 본부 간지를 통해 '나눔가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지도 좋은데 저도 가게를 운영하니까, 이참에 가게 이름으로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기까지 별다른 이유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원을 바라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현재 저는 백혈병, 난치병 아동 청소년 치료비 지원사업과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두 분야를 선택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외된 아이들, 학대받거나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이 아이들이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상담쪽 일을 배워서 그런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본부나 화요일아침예수학교 같은 교회 기관들의 활동들을 후원하며 마음 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은 '마음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또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모두 마음이 닿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후원은 부끄러울 정도로 작게 하고 있지만요. 저는 이 가게를 하면서도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의 향기를 전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박하고 삭막하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 꽃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만든 꽃다발을 보면서 잠시나마 아름다움을, 향기로움을,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실 다른 독자 여러분께도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작은 나눔이라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나눔가게· 나눔기업이란?



나눔가게·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참여문의 02)727-2263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김태호 마르코



박로아 라파엘라

생애첫기부

고태을 2017.12.21생 父 고명현 母 편혜준 | **구성모** 2017.04.06생 父 구본진 母 신재윤 | **권연준** 2017.05.10생 父 권일 母 김진형 | **권유리 안젤라 메리치** 2014.05.23생 父 권민중 母 김정은 | **김가은** 2017.03.23생 父 김성룡 母 이화선 | **김나현** 2017.04.18생 父 김정대 母 한지유 | **김리안 니콜라오** 2017.03.02생 父 김민혁 母 유유진 | **김서우** 2017.05.02생 父 김도윤 母 양지연 | **김시현** 2017.05.02생 父 김도윤 母 양지연 | **김아윤** 2017.05.17생 父 김재욱 母 허안나 | **김예한** 2017.06.06생 父 김보규 母 박혜빈 | **김유주** 2017.04.27생 母 허정윤 | **김은우** 2017.03.23생 父 김성룡 母 이화선 | **김은재 아델라** 2018.02.06생 父 김우진 母 조희정 | **김재성 가브리엘** 2009.07.15생 父 김승찬 母 이정미 | **김지훈 비오** 2009.06.06생 父 김세훈 | **김진영 프란치스코** 2017.09.08생 父 김이혁 母 배정숙 | **김치민** 2018.03.02생 父 김성욱 母 박선영 | **김채민 스티븐** 2017.04.09생 父 김태한 母 이주희 | **김재윤 헬린다** 2018.02.05생 父 김상수 母 윤순영 | **김태호 마르코** 2017.04.23생 父 김민규 母 이소연 | **김하연 스티븐** 2011.05.29생 父 김승찬 母 이정미 | **김하윤 소피아** 2017.04.28생 父 김용태 母 인다울 | **김하진 그레고리오** 2017.05.20생 父 김형준 母 천세은 | **꼬물이(테명)** 2018.04.17생 父 허병구 母 한서윤 | **나하윤** 2017.02.16생 父 나상우 母 구상희 | **류한민 엘리사벳** 2017.04.22생 父 류준걸 母 이정미 | **민경훈** 2017.05.06생 父 민한기 母 이은지 | **박로아 라파엘라** 2017.03.15생 父 박대원 母 안솔임 | **박승안 알베르토** 2014.05.20생 父 박종범 母 정보리 | **박시현** 2017.04.14생 父 박정민 母 송혜련 | **박이은** 2015.05.06생 父 박성철 母 홍리나 | **박이준** 2013.09.02생 父 박성철 母 홍리나 | **박재완 레오** 2017.05.04생 父 박종범 母 정보리 | **박찬의 안셀모** 2006.04.22생 父 박승안 母 임영화 | **박재은 엘리나** 2017.05.30생 父 박종훈 母 하신유 | **베루아 페르테루아** 2017.03.21생 父 배봉현 母 옥혜리 | **배지수 유스티나** 2017.06.01생 父 배재성 母 정선주 | **배하경 마리아막달레나** 2017.01.28생 父 배요한 母 함경태 | **범은우** 2018.02.22생 父 범지원 母 고준경 | **손하윤 라파엘** 2017.05.26생 父 손일석 母 권보나 | **손하준 마카엘** 2017.05.26생 父 손일석 母 권보나 | **신은우 바오로** 2016.12.20생 父 신승찬 母 김선희 | **심승빈** 2017.05.26생 父 심재홍 母 안수진 | **양소윤** 2017.12.23생 父 양승국 母 노국진 | **양솔하** 2016.11.24생 父 양승한 母 객서린 | **양시우** 2017.06.22생 父 양상원 母 유지혜 | **오성우 프란치스코** 2017.03.09생 父 오병욱 母 임소윤 | **오예지 켈마** 2017.05.29생 父 오정택 母 감미경 | **오윤지 에바** 2017.05.29생 父 오정택 母 감미경 | **왕선우 안토니오** 2017.03.17생 父 왕희성 母 박혜림 | **우예진** 2018.02.27생 父 우현규 母 김선영 | **유일한** 2017.11.17생 父 유효중 母 홍성주 | **윤서빈 세라피노** 2017.03.15생 父 윤정호 母 오세미 | **윤서은** 2015.05.14생 父 윤준성 母 최혜린 | **윤이수** 2017.03.20생 父 윤영준 母 남현정 | **윤재훈 루카** 2015.03.22생 父 윤상현 母 최현아 | **이다은 소피아** 2017.05.02생 父 이윤복 母 이영주 | **이도** 2017.12.23생 父 이도훈 母 조민아 | **이도열 스테파노** 2016.03.08생 父 이원희 母 박상은 | **이민희** 2018.01.23생 父 이상민 母 허주연 | **이서준** 2014.04.17생 父 이승배 母 윤소민 | **이소윤** 2017.04.17생 父 이윤빈 母 이유진 | **이수인 글라라** 2017.02.07생 父 이규복 母 하주영 | **이시은** 2015.05.21생 父 이영호 母 김영주 | **이시윤** 2017.04.30생 父 이채훈 母 이치후 | **이신우 라파엘** 2017.03.20생 父 이훈 母 신설아 | **이유하 다니엘** 2018.02.20생 父 이진용 母 유상희 | **이재연** 2018.02.18생 父 이도현 母 김경준 | **이지안 스티븐** 2012.02.24생 父 이승우 母 박혜진 | **이지원** 2017.03.27생 父 이광복 母 김미경 | **이하린 레이자** 2017.06.25생 父 이병태 母 조희주 | **이하을** 2018.04.02생 父 이세영 母 최유리 | **임다은** 2017.12.08생 父 임상훈 母 박지혜 | **장하준** 2016.07.23생 父 장은훈 母 최지은 | **정소윤** 2017.03.05생 父 정근채 母 유선숙 | **정수현** 2017.03.20생 父 정호연 母 김재경 | **정시연 세라피나** 2016.12.01생 父 정현재 母 신지혜 | **정영서 베르타** 2017.05.17생 父 정찬우 母 이세인 | **정예진** 2017.04.13생 父 정동욱 母 신진희 | **정이안** 2018.02.08생 父 정영관 母 이지현 | **정지인 아나스타시아** 2016.12.01생 父 정현재 母 신지혜 | **정혜민** 2018.04.17생 父 정진하 母 박은진 | **조승윤** 2017.04.07생 父 조성찬 母 권선연 | **조은우 베네딕토** 2017.03.12생 父 조준호 母 김문주 | **조유진 아나스타시아** 2017.03.16생 父 조범준 母 송지연 | **조윤서 스티븐** 2017.04.03생 父 조순근 母 김선영 | **조재윤 라파엘** 2017.04.16생 父 조준일 母 진민정 | **진이현 아네스** 2017.05.03생 父 진덕윤 母 배우리 | **최서준 디모테오** 2017.01.02생 父 최민철 母 최누리 | **최홍림 조셉(테명)** 2018.04.06생 父 최석윤 母 이민아 | **표이안** 2017.10.01생 父 표용하 母 이주호 | **하주원 엘리사벳** 2017.11.28생 父 하대용 母 유정은 | **한하람** 2017.05.02생 父 한재현 母 이민주 | **허시훈 라파엘** 2017.11.17생 父 허동주 母 박선하 | **홍다희 소화대데사** 2017.10.09생 父 홍민기 母 한지희 | **홍지안** 2013.03.25생 父 홍준호 母 이병연 | **황요안 요한 안젤로** 2014.05.21생 父 황선용 母 이정진 | **황현준** 2017.03.31생 父 황진수 母 최미숙

두 번째 기부

김서민 2016.03.23생 父 김성진 母 이해란 | **김수호 요셉** 2016.03.15생 父 김효선 母 송화영 | **김유안 비오** 2017.03.20생 父 김호선 母 정우경 | **김주호** 2016.05.19생 父 김승찬 母 권희경 | **김지원 라엘** 2017.03.28생 父 김정철 母 김은정 | **김지우 비비안나** 2016.03.28생 父 김우찬 母 김민혜 | **김태은** 2016.03.26생 父 김준호 母 최진숙 | **김하경 미카엘라** 2016.03.02생 父 김한준 母 이재은 | **김해나 아네스** 2016.04.20생 父 김희상 母 이수경 | **김해랑 마더데사** 2016.05.06생 父 김성훈 母 황하나 | **김해울** 2016.05.12생 父 김도현 母 노경선 | **박다예** 2015.04.03생 父 박인석 母 신세하 | **박준휘 바오로** 2016.06.07생 父 박종연 母 김정은 | **박해울 마카엘** 2017.06.07생 父 박영돈 母 홍선진 | **사유진 헬리나** 2017.03.29생 父 사장빈 母 두슬기 | **송선아** 2016.05.16생 父 송병주 母 강문희 | **안태진 저스티** 2006.04.17생 父 안진호 母 조인영 | **오선우 요셉** 2016.03.24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 **오지윤 레아** 2016.05.28생 父 오현준 母 이은정 | **오재민** 2016.08.03생 父 오병택 母 강고은 | **이서현** 2017.08.02생 父 이도영 母 김유경 | **이소민 라파엘라** 2015.10.02생 父 이진승 母 임현주 | **이시훈** 2016.04.28생 父 이병한 母 임소현 | **이유림 페르테루아** 2016.03.01생 父 이용준 母 변민영 | **이윤승** 2016.04.30생 父 이경환 母 박소현 | **이윤호 레오** 2016.03.21생 父 이선호 母 김규빈 | **이재윤 노엘** 2013.03.29생 父 이승희 母 윤선애 | **이주하 카타리나** 2016.04.18생 父 이선휴 母 박지현 | **이진아** 2013.03.05생 父 이상우 母 유영진 | **이찬 프란치스코** 2017.03.11생 父 이장훈 母 김지은 | **이하람** 2016.06.24생 父 이종호 母 김민혜 | **임도윤** 2017.05.28생 父 임형철 母 박사라 | **임재민 베네딕토** 2015.04.21생 父 임정완 母 배수현 | **장경준 알루치오** 2017.03.29생 父 장기영 母 국지윤 | **전서윤 엘리사벳** 2017.05.02생 父 전형률 母 김선희 | **정은우** 2016.04.26생 父 정승현 母 정문경 | **정인호 레오** 2015.08.18생 父 정원재 母 김수연 | **지준호 사도요한** 2005.04.27생 父 지승한 母 장미선 | **차고윤** 2017.03.20생 父 차규상 母 고예림 | **최시안 안젤로** 2016.02.28생 父 최완섭 母 김현희 | **허을 최영이 바르바라** 2013.05.14생 父 허준수 母 허지영 | **홍대경** 2016.03.23생 父 홍현철 母 박소영 | **황재연** 2016.05.03생 父 황국 母 박민선

세 번째 기부

강희대 마르코 2015.04.25생 父 강경국 母 고유리 | **권도윤 임마누엘** 2015.04.05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 **김규민 프란체스카** 2015.06.03생 父 김지수 母 전진령 | **김도현 세례자요한** 2007.06.12생 父 김수영 母 손지민 | **김지아** 2015.04.20생 父 김진구 母 김정은 | **김지은** 2016.05.19생 父 김용기 母 박유리 | **김하은 그라시아** 2011.10.10생 父 김용기 母 박유리 | **남영우** 2011.09.06생 父 남덕진 母 박대하 | **민소은** 2015.05.11생 父 민상현 母 신서현 | **박지호 바오로** 2016.04.05생 父 박영준 母 홍상희 | **손준혁 율리오** 2015.04.20생 父 손동진 母 김보림 | **송다니엘 다니엘** 2016.03.05생 父 송승희 母 오마카엘라 | **원승목** 2015.04.30생 父 원유식 母 김은영 | **윤서준 프란치스코** 2014.07.30생 父 윤찬현 母 한제희 | **윤성준 요셉** 2016.04.04생 父 이갈석 母 문경희 | **이가현 노엘라** 2015.04.21생 父 이순규 母 유승연 | **이수현 프란치스코** 2015.03.10생 父 이우상 母 박현진 | **이아윤 벨라데타** 2015.04.16생 父 이인영 母 이선미 | **이윤아 로사** 2017.04.21생 父 이상현 母 박민정 | **이주원** 2016.04.08생 父 이상훈 母 이민선 | **이지호 소피아** 2015.09.30생 父 이영우 母 김윤정 | **이지호** 2015.05.29생 父 이기재 母 김경태 | **임예원** 2015.04.18생 父 임상훈 母 김고은 | **정민주 엘리사벳** 2009.06.01생 父 정태훈 母 박의명 | **지서안** 2015.04.01생 父 지대현 母 이기광 | **최예나** 2015.05.26생 父 최석훈 母 이승현 | **최은준 아고스토** 2015.05.16생 父 최인한 母 김선영 | **하나혜** 2015.04.30생 父 하상우 母 장미선 | **한종률 천주익성호** 2015.03.09생 父 한용규 母 김수연 | **홍윤우 사도요한** 2012.10.23생 父 홍승환 母 조혜진



박승환 알베르토, 박재완 레오



배하경 마리아막달레나



진이현 아네스



황현준

네 번째 기부

권성운 다니엘 2014.03.05생 父 권정근 母 김은혜 | **김나을** 2014.02.06생 父 김도현 母 노경선 | **김다솜 연희마리아** 2014.04.14생 父 김영부 母 송해련 | **김민재 라파엘** 2014.10.04생 父 김도윤 母 양지연 | **김지우 율리아** 2015.05.22생 父 김정현 母 정혜진 | **나윤서 에밀리아** 2014.03.04생 父 나상오 母 구상희 | **노이진 마리아** 2015.02.17생 父 노상범 母 소은희 | **범지우 로사** 2014.05.02생 父 범지원 母 고준경 | **서하을 프란치스코** 2013.03.14생 父 서지훈 母 김수연 | **송다겸** 2014.04.24생 父 송원영 母 명소형 | **유시현 바르나바** 2014.06.10생 父 유대환 母 손해민 | **윤석준 프란치스코** 2014.07.30생 父 윤찬현 母 한재희 | **이민건 토마스아퀴나스** 2009.01.28생 父 이재관 母 양미경 | **이지유 로사리아** 2015.03.04생 父 이동훈 母 오은샘 | **정연아** 2014.02.25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 **조영후 라파엘** 2012.05.19생 父 조진용 母 김희선 | **조에서** 2013.04.22생 父 조광재 母 김미선 | **조원재 토마스 아퀴나스** 2014.02.25생 父 조장호 母 이세라 | **한데라사 데레사** 2009.03.22생 父 피재환 母 한소진 | **홍지원 요한** 2014.04.21생 父 홍성철 母 변정연

다섯 번째 기부

김호근 프란치스코 2014.04.15생 父 김광연 母 이지은 | **박대림 다미안** 2015.08.10생 父 박정훈 母 최형빈 | **신지민 아네스** 2011.08.03생 父 신진호 母 김유정 | **심세형 안드레아** 2012.06.19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오하정 카타리나** 2012.05.03생 父 오택문 母 은현정 | **윤진우 라파엘** 2013.05.28생 父 윤승배 母 최문형 | **이문정** 2007.05.24생 父 이준수 母 이상은 | **장지훈** 2013.03.21생 父 장현석 母 정호빈 | **정우혁** 2013.02.27생 父 정성용 母 백수정 | **정하준** 2013.04.10생 父 정용욱 母 안영은 | **진여운** 2013.04.06생 父 진동섭 母 문아미 | **차규림 크리스티나** 2013.03.28생 父 차규상 母 고예림 | **최아윤 에스텔** 2012.07.02생 父 최안환 母 김선영 | **최윤 마리스텔라** 2013.03.13생 父 최지완 母 김희원 | **한석현 알렉산데르** 2013.08.11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 **한정현 대건안드레아** 2011.08.20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여섯 번째 기부

김나을 마리스텔라 2012.05.23생 父 김동진 母 황수현 | **김보민 보나** 2012.05.03생 父 김태현 母 박정미 | **김준서 라파엘** 2012.02.18생 父 김종문 母 정희정 | **박설아** 2012.04.24생 父 박세현 母 손은진 | **박시우 요셉** 2012.04.10생 父 박정호 母 임미혜 | **박지을** 2012.03.06생 父 박형석 母 임경화 | **오시현 라파엘** 2012.06.25생 父 오강민 母 이해정 | **오윤우 안드레아** 2009.06.07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 **이한결 리노** 2012.05.29생 父 이승학 母 김윤정 | **임서연 헬레나** 2009.07.11생 父 임치환 母 민지혜 | **홍상현 윌리엄** 2013.05.26생 父 홍재준 母 정지영

일곱 번째 기부

강서윤 스콜라스티카 2004.06.25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 **강서진 요안나** 1994.04.29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 **권경현 안드레아** 2011.04.19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 **김예은 가타리나** 2012.04.28생 父 김남호 母 오해순 |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정성하 요셉** 2011.03.09생 父 정용문 母 김애리 | **정수아** 2011.04.29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 **최다인 로사** 2010.03.06생 父 최상규 母 이상은

여덟 번째 기부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윤정훈 안셀모** 2011.02.08생 父 윤용덕 母 제민영

열 번째 기부

이아람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열여덟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멋진 팬들의 기부

비투비 데뷔 6주년 | **임현식 아르도** 생일 기념 | **신화** 데뷔 20주년

생일 기부

고재인 시몬 | **김남욱 글라라** | **김진우 노엘** | **양정윤 레오나** | **이광무 요한** | **이유진 로사리아**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두경자 베르나데타 | 故 서두식 바오로 | 故 서정훈 | 故 조정갑 요한 | 故 홍진용 루카 | 아기 천사 강라온 | 아기천사 홍해성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권순신 프란치스코 & 이유진 사라 결혼기념 | 김상원 리노 & 송리나 리나 임신기념 | 김홍중 & 최지향 미카엘라 결혼 15주년 | 박상문 세례자요한 & 고광희 이사벨라 결혼기념 | 박승환 베네딕토 & 임명화 이레나 결혼 18주년 | 박우진 시몬 & 김지나 레지나 결혼 3주년 | 박채준 & 한영미 베로니카 결혼기념 | 성민석 베드로 & 최다혜 베로니카 | 심재윤 바오로 & 이근정 에밀리아 결혼 10주년 | 오재영 & 김은주 결혼 6주년 | 이상호 토마 & 강미영 안나 결혼 5주년 | 이선민 라파엘 & 문경자 라파엘라 결혼 9주년 | 이정민 암브로시오 & 최윤금 아셀라 결혼 4주년 | 이준일 & 이은영 마르가리타 결혼기념 | 이주홍 요한바오로2세 & 민송이 엠마 결혼 4주년 | 이준환 & 봉서윤 신티아 결혼 1주년 | 정일호 스테파노 & 이순정 세라피나 결혼 38주년 | 정정훈 고르델리오 & 이수란 소화데레사 결혼 4주년 | 조성호 & 김정은 미카엘라 결혼 2주년 | 조훈 다니엘 & 나혜영 마리아 결혼 4주년

감사 기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계성초등학교 | 구립강서구직원재활센터 | 김소정 루시가 장학금 수령 기념 | 도곡어린이집 | 로즈호텔라정원 2주년 기념 | 박리하 월급 기념 | 박수미 안젤리카 임신 기념 | 박용배 팔순 기념 | 서울대학교 청수년국 선택 | 서울애화학교 | 신당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 유튜브 채널 가톨릭주요소 1주년 기념 | 이문동성당 | 이현석 레오 첫 월급 기념 | 장희석 부르노 주님 부활 기념

한마음한몸 새 소식

1 수원교구, 자살예방 캠페인 개최



5월 26일(토), 수원교구청에서 열린 2018 생명사랑축제에서 자살예방캠페인 '한마음한몸'이 진행되었습니다. 성 마르코본당 예비신학생 동아리 '한별'이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를 주제로 마련한 부스에 들른 청소년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축제에 앞서 7명의 예비신학생들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교육자료를 통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대해 공부하며, 성남시 야탑역 근처에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주제로 피켓을 만들어 사전 가두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 자살예방활동가 보수교육 실시



6월 15일(금), 서울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자살예방센터의 교육을 수료한 자살예방활동가 55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의 교육요구를 반영하고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의 주제는 "자살예방상담자가 된다는 것(강사: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황순찬 센터장)"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살 위기자들의 심리적 위기를 이해하고, 위기자들을 만났을 때 요구되는 올바른 대처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활동가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3 생명나눔의 시작, 장기기증 캠페인



본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장위동 성당, 포이동 성당, 월곡동 성당, 가락2동 성당, 명동 성당, 수원교구청, 과천시 보건소와 세명대를 비롯한 13개 대학교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캠페인 전개로 총 690명의 장기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널리 전할 수 있었습니다.

4 사제성화의 날 생명나눔 캠페인



본부는 지난 6월 8일(금), 사제성화의 날에 명동 성당에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신청을 위한 생명나눔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사제 및 일반시민이 참여했고 41명의 장기기증 희망 신청자, 6명의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신청자가 생명나눔에 기여하 동참해주었습니다. 사제성화의 날에 진행된 생명나눔 캠페인은 주님의 거룩함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모집 캠페인



본부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 사목부 및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희망자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삼성카드 본사 캠페인을 시작으로 16개 대학, 명동성당 등에서 총 26회 캠페인을 진행하여 1,183명이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명동 가톨릭생명나눔센터에서 33명이 직접 방문하여 희망등록하였습니다.

6 필리핀 현장방문



5월 20일(일)부터 5월 28일(월)까지, 본부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필리핀 바기오-벵게트 지역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유기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Our Farmers' Haven의 삼자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앞으로도 영세한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본부는 서울 신화 중학교(4/20), 안성 안법고등학교(4/25, 5/16), 성남 태원고등학교 (6/5, 6/12), 경기 광주 태전고등학교(6/5, 6/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곤, 인권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 한우지원사업 빠른 채용을 바랍니다

2018. 4~6. | 단위: 만 원

지원사업	성명	병명	진료비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사업	박OO	자궁육종암(암)	900
	밤OOO	방광외반증(희귀)	1,000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사업	송OO	뇌종양(암)	1,000
	예OOOO	신생아 경련	1,000
긴급지원 사업	박OO	심장이식	900
	유OO	허혈성 심근병증	900
	이OO	간이식	1,000
	공OO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400
	김OO	뇌간뇌졸중 증후군	400
	김OO	하인두암	500
	이OO	사신경척수염	900
	이OO	전립선암	900

| SNS로 보는 나눔 이야기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법



하루 100원 모으기 | 100원, 그 큰 나눔의 씨앗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 작은 정성, 큰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생애첫기부 |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의 생일, 그 축복을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친구와 나눕니다.



기념일기부 | 내 생애 뜻깊은 날이 이웃에게도

생일, 입학, 취업 등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에게 나눔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유산기부 | 가장 위대한 유산, 나눔

우리가 남긴 유산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남깁니다.



헌미헌금 |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미헌금 봉헌의 달인 5월과 9월, 예수님과 이웃 몫의 한 줌 쌀을 모으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 내 가게를 나눔의 터전으로

가게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의 기회, 소비자에게는 일상 속 나눔 실천의 기회입니다.



ARS 후원 | 가장 쉽고 빠른 나눔,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사용한 전화요금 결제를 통해 후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연락주시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법을 안내해드립니다.

02)727-2285, 2288 |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